



여의도연구원

국민행복을 디자인합니다

Vol.2014-09

여연브리프

YDI BRIEF

발행일 2014년 12월 4일

보수이데올로기 혁신 : 영국 보수당의 사례

- 목 차 -

요 약

I. 목적 및 구성	1
II. 2차대전 이후 영국정치와 보수당	2
III. 영국 보수주의	5
IV. 데이비드 캐머런의 '큰 사회론(Big Society)	10
V. 한국 보수주의를 위한 시사점	13
참고문헌	16

작성 : 최효노 연구위원
(02) 2070-3312

《 요 약 》

- 2차대전 이후 영국 정치는 상이한 이념과 정책이 교차하는 시기들이 이어져 왔음.
 - 1970년대까지의 사회민주주의 시대, 1980~1990년대의 신자유주의 시대, 1990년대 후반 이후 '제3의 길'과 2005년 이후 '큰 사회론(Big Society)'의 시기로 구분할 수 있음.
- 영국 보수주의에는 자유방임적 시장경제주의와 일국 보수주의(One Nation Conservatism) 혹은 온정적 보수주의라는 두 개의 원칙이 존재
 - 2차대전 이후 영국 보수당 내부에서는 자유방임적 시장경제주의를 옹호하는 '건파(dries)'와 온정적 보수주의를 옹호하는 '습파(wets)'가 순환하며 주도권을 잡아 왔음.
- 영국 보수주의의 변천
 - 시대적 요구에 따라 복지국가의 확대가 필요한 시점에서는 '습파'가 주도권을 쥐었고, 반대로 국가 개입주의의 폐해가 심해졌을 때는 '건파'의 주장이 득세했음.
 - 이는 보수당 정치인들이 자유방임적 시장경제주의나 일국 보수주의 가운데 어느 하나의 원칙이나 가치에만 집착하지 않고 이념적으로 유연하게 대처해 왔다는 것을 보여줌.
 - 기존의 '건파' 노선이나 '습파' 노선이 영국 사회가 처한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이것이 보수당의 위기로 나타날 때는 보수당 내에서 제3의 길 이 등장하기도 하였으며, 데이비드 캐머런의 '큰 사회론'이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함.
 - 영국 보수주의가 이처럼 이념적 유연성을 보일 수 있었던 데는 디즈레일리, 맥밀런, 대처, 캐머런 등과 같은 당 지도자의 리더십과 역량이 큰 작용을 함.

□ 한국 보수주의의 혁신을 위한 시사점

○ 일국 보수주의 혹은 온정적 보수주의 정신의 필요성

- 영국의 일국 보수주의 혹은 온정적 보수주의는 산업혁명의 여파로 영국 사회가 양극화되었을 때 어떻게 사회를 통합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보수당의 고민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음.
- 한국의 보수주의에는 온정적 보수주의와 같은 전통이 없지만 기득권 계층의 온정주의는 사회 통합 및 조화로운 사회 건설을 위해 한국의 보수주의가 새롭게 담아내야 할 정신 혹은 가치라고 할 수 있음.

○ 이념적 유연성

- 영국 보수당의 역사와 영국 보수주의의 변천 과정은 보수당 정치인들이 자유방임적 시장경제주의나 일국 보수주의 가운데 어느 하나의 원칙이나 가치에만 집착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줌.
- 시대정신을 읽고 이에 부응할 수 있는 이념적 유연성은 한국의 보수주의에도 필요한 정신임.
-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고 유권자들이 원하는 것이 자유시장 경제에 입각한 성장우선주의인지 아니면 경제민주화나 국가에 의한 더 많은 복지의 제공인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만약 후자라면 새누리당과 한국의 보수주의는 이를 수용하기 위한 이념 혹은 정신을 새로 만들어낼 필요가 있음.

○ 실용정신

- 보수당은 이념이나 원칙보다도 선거 승리라는 실용적 목적을 더 중시해 왔고, 필요하다면 자유당이나 노동당이 추진한 정책도 수용하거나 모방하면서 중도화의 길을 택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음.
- 이와 같은 실용정신은 선거 승리뿐만 아니라 보수당이 '모두를 위한 정당'이고 '국가이익의 수호자'라는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기여함.
- 실용정신이 이처럼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실천'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임.
- 새누리당도 보수주의 이념이나 원칙만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중도화 전략을 택해야 하며, 또한 기득권 계층을 위한 정당으로부터 모두를 위한 정당으로 당의 지지기반을 넓혀나가야 함.
- 이때 중요한 것은 어떤 정책들을 실시하겠다고 공약을 했거나 실시하기로 결정을 했다면 실제로 이를 지키는 것임.

I. 목적 및 구성

□ 목적

- 영국의 보수주의가 시대상황의 변화와 시대적 요구에 따라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한국 보수주의의 혁신을 위한 시사점들을 찾아보는데 있음.
- 여러 국가들 가운데 영국 보수주의를 사례로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음.
 - 영국의 보수당은 20세기 가운데 30여년 정도를 제외하고는 집권당으로서의 지위를 잃지 않고 영국정치를 이끌어 왔으며, 따라서 영국 보수주의는 정치 이데올로기의 변화상을 통시적(通時的)으로 살펴보는데 적합한 사례로 볼 수 있음.
 - 뿐만 아니라 2005년 보수당 당수에 당선된 데이비드 캐머런은 보수당과 영국사회가 직면한 위기를 타개하고자 ‘큰 사회론’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보수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혁신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최근의 사례임.

□ 구성

- II장에서는 2차대전 이후 영국정치의 흐름을 살펴봄.
- III장에서는 영국 보수주의의 두 축을 형성한다고 할 수 있는 자유방임적 시장경제주의와 온정적 보수주의가 시대변화에 따라 어떻게 순환되어 왔는지를 살펴봄.
- IV장에서는 데이비드 캐머런의 ‘큰 사회론’이 등장하게 된 배경과 내용, 그리고 영국 보수주의 전통과 ‘큰 사회론’의 관계를 평가함.
- V장에서는 한국 보수주의의 혁신을 위한 시사점들을 논의함.

Ⅱ. 2차대전 이후 영국정치와 보수당

1. 2차대전 이후 영국정치(1945~2005)

※ 2차대전 이후의 영국정치는 1970년대까지의 사회민주주의 시대, 1980~1990년대의 신자유주의 시대, 1990년대 후반 이후 '제3의 길'과 2005년 이후 '큰 사회론'의 시기로 구분할 수 있음.

□ 사회민주주의 및 합의의 정치 시대 (1945~1979)

- 2차대전 이후 집권한 노동당 정부는 '큰 국가(big state)'의 주도 하에 완전고용, 복지국가, 조합주의(corporatism)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민주주의를 지향
- 노동당에 이어 집권한 보수당 정부도 사회·경제 영역에서 국가의 역할 증대에 동의

□ '불만의 겨울' (1978~1979)

- 국가 주도의 혼합경제와 복지국가는 관료주의와 비효율성을 노정
- 1960년대 말부터 고실업, 고인플레이, 강성노조의 폐해 등장
- 영국은 '영국병(British Disease)'에 걸린 '유럽의 환자(sick man of Europe)'로 전락, 1976년에 IMF로부터 구제 금융을 받음.
- 특히 1978년 말부터 1979년 초까지 겨울 내내 계속된 공공부문 노동쟁의의 여파로 영국사회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되는데 노동당 정부는 이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함.
 - 이 시기 노동당 정부의 무능과 정책 실패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은 극에 달함.

□ 대처주의 및 신자유주의 시대(1979~1996)

- 대처(Margaret Thatcher)는 지나치게 커진 국가, 고세율, 개인 책임의 붕괴를 '영국병'의 원인으로 진단

- ‘영국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시장 자유주의에 입각해 국가의 역할을 최소화하고 개인의 창의성을 증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 또한 2차대전 이후 관용의 사회(permissive society)의 등장으로 무너진 전통 사회질서, 공공도덕, 윤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 사회·문화적으로 엄격한 권위주의적 정책 실시
- 1979년, 1983년, 1987년 총선에서 보수당이 승리
 - 그러나 보수당 집권 10여 년간 부진한 경제지표와 고실업이 계속됨. ‘보수당은 경제적 능력과 효율성의 정당’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되고, 1997년 총선에서 블레어의 신노동당에게 참패

□ 신노동당의 ‘제3의 길’ (1997~2005)

- ‘제3의 길’은 사회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고안됨.
- 경제부문에서는 대처주의의 자유시장 접근법을 대체로 수용
- 반면에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의 부작용과 불공정한 요소들은 적극적인 사회복지의 제공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였으며, 이를 통해 사회정의, 사회통합, 기회균등을 실현하려고 함.
- 계속된 경제성장과 함께 복지와 공공서비스에 대한 개혁, 공공지출 증대로 신노동당은 유권자들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음.
- 그러나 2008년 말 금융위기와 이어진 경기침체로 막대한 재정적자 초래

2. 보수당의 위기

- 1997년 이후 3번의 총선에서 연패하고 보수당은 13년간 야당의 위치에 머물러 있게 됨.
- 국내적으로는 신자유주의가 초래한 빈곤, 양극화, 그리고 이로 인한 사회 붕괴의 위기가 주된 사회 문제로 등장
 - 보수당 내 주류를 형성하고 있던 대처주의식 접근법으로는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게 됨.
- 이와 같은 위기에서 보수당 정치인들이 영국 보수주의를 어떻게 혁신했는지를 살펴보기 전에 아래 III장에서는 먼저 영국 보수주의의 특징과 과거 보수당 정치인들이 시대적 요구에 따라 보수 이데올로기를 어떻게 변화시켜 왔는지를 개괄함.

Ⅲ. 영국 보수주의

※ 프랑스혁명시기부터 1860년대까지 영국 보수주의의 두 축을 이룬다고 할 수 있는 자유방임적 시장경제주의와 일국 보수주의(One Nation Conservatism) 혹은 온정적 보수주의의 원리가 형성됨.

1. 자유방임적 시장경제주의

□ 영국 보수주의 사상의 한 핵심은 프랑스대혁명 시기에 활동했던 정치가 버크(Edmund Burke)에 의해 수립됨.

□ 버크, 경제문제에 정부의 개입 반대

○ 1795년 흉년으로 인해 곡물가가 급등했을 때 이를 둘러싸고 의회에서 논쟁이 벌어졌으며, 당시 버크는 경제적 곤경을 완화시키기 위해 정부가 개입하는 것에 강력히 반대

○ 버크는 정부의 시장 개입은 당시 유행하게 된 정치적인 사조, 즉 모든 사회악들은 즉각적인 정치적 행위에 의해 치유될 수 있고, 추상적·연역적 사고를 통해 유토피아를 구성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연유한다고 봄.

○ 버크는 사람들이 이익을 추구할 때 국가가 그 생산/소비 체계의 수요/공급 법칙에 간섭해서는 안된다고 주장¹⁾

○ 또한 노동을 자연의 법칙 속에 구현되어 있는 신법에 따라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 국가에 의한 빈곤구제의 필요성을 부인

- 그는 궁핍한 사람들에 대한 원조는 공적인 부조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적인 자선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

□ 버크는 신분과 부의 불평등이 존재하는 질서정연한 위계질서 속에서의 자본의 축적을 인정

1) 보수주의에서는 인간이 이성적·지적·도덕적으로 불완전하다고 보기 때문에 어떤 체계적이고 거대한 이론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계획이나 이에 의거하여 시행되는 급진적 개혁이나 혁명에 반대함.

2. 일국 보수주의(One Nation Conservatism) 혹은 온정적 보수주의

- 1834년 로버트 필(Robert Peel), 보수당 수상이 되면서 자유방임적 정치경제와 자유무역을 보수당의 기본원칙으로 도입하겠다고 주장
- 필의 주장은 당내 일각으로부터 상당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는데 불만세력 가운데는 디즈레일리(Benjamin Disraeli)와 ‘젊은 영국그룹(Young England Group)’이 포함되어 있었음.
- 디즈레일리와 ‘젊은 영국그룹’, 귀족계급 혹은 엘리트층이 하층민들에 대해 온정적 관심을 갖고 그들의 삶을 개선시킴으로써 하나의 통합된 국가(One Nation)를 건설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
- 디즈레일리, 1845년 당시 영국 노동계급의 상황을 다룬 소설 『시빌 혹은 두 국가(Sybil or The Two Nations)』 발표
 - 이 소설에서 그는 빅토리아 여왕의 영국은 두 개의 국가로 나뉘어져 있고 이 국가들 사이에는 교류도 없고 서로에 대해 아는 바도 없어서 마치 다른 행성에 살고 있는 것과 같다고 묘사
 - 디즈레일리는 이와 같은 상황이 당대의 야만주의에서 기인한다고 진단하고 사회의 조화를 회복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
 - 그러기 위해서는 귀족계급이 그 책임을 통감하고 하층민들을 돕기 위해 그들에게 맡겨진 부를 사용해야 한다고 역설
- 1872년 디즈레일리는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다양한 사회개혁 프로그램들을 추진해 노동계급으로부터 큰 환영을 받았고 보수당의 지지기반을 넓히는 계기가 됨.
- 디즈레일리의 일국 보수주의(One Nation Conservatism) 혹은 온정적 보수주의는 자유방임적 시장경제주의와 함께 이후 영국 보수주의의 두 축을 형성
- 일국 보수주의에서는 사회를 상이하지만 서로 상보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계급들의 조화로운 통합체로 봄.

- 각 계급은 각각의 맡은 의무와 책임을 수행함으로써 사회라는 건축물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
- 재산은 빈자들의 복지를 위해 부자들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고 부자들이 빈민들에 대한 보호 의무를 다시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

3. 보수당內 자유방임적 시장경제주의와 일국 보수주의의 순환

※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보수당 내에서는 자유방임적 시장경제주의와 일국 보수주의가 시대적 변화와 요구에 따라 순환하며 득세

□ 1950년대

○ 1950년대에 보수당은 ‘건파’²⁾의 주도로 시작

- 1950년에서 1951년 사이의 선거운동에서 보수당은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라 (Set the People Free)’는 구호와 함께 당시의 사회복지 체계가 부적절한 복지 수당과 과세수준으로 인해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인다고 비판

○ 그러나, 경기침체가 시작된 1957~58년 사이에 맥밀런(Harold Macmillan)이 수상이 되면서 ‘습파’가 보수당을 주도

- ‘습파’는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고용주·노동조합·정부로 구성된 국민 경제발전심의회 설립, 임금 동결, 산업에 대한 보조금 증액 등 경제에 대한 국가 개입 강화

□ 1960년대

○ 1964년과 1966년의 선거에서 보수당은 노동당에 연이어 패배

○ 당 내에서는 보수당이 온정적 보수주의로부터 벗어나서 노동당과의 차별성을 보여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제기되면서 ‘건파’가 득세

2) 보수당 내에서 자유방임적 시장경제주의를 옹호하는 입장은 ‘건파(dries)’라고 불리우고, 일국 보수주의를 옹호하는 입장은 ‘습파(wets)’라고 불림.

□ 1970년대

- ‘건파’의 히스(Edward Heath)는 집권 후 보수당을 전후의 합의정치체제로부터 보다 우파적인 방향으로 끌고 가고자 함.
 - 이를 위해 자유시장경제정책으로의 전환, 낙후된 산업이나 경쟁력 없는 산업(‘레임덕’ 산업)에 대한 국가보조금 지원 거부, 개인이 어렵더라도 무료 학교 급식이나 무상의료 지원 등은 하지 않기로 함.
- 그러나, 히스 집권 이후 실업률이 계속 증가해 노동자 계급의 저항에 직면하고 제조업도 침체에 빠지게 되는 등 경제상황이 악화되자 그동안 공언해 왔던 정책노선의 방향을 바꿈.
 - 즉, 물가와 소득을 통제하고, 공공지출을 늘리고, ‘레임덕’ 산업에 대해서도 지원을 함.
 - 그 결과, 복지 지출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국유화가 확대되었으며 완전고용 정책이 추진되고 경제에 대한 국가통제가 심화됨으로써 노동당 정부보다 훨씬 더 자유시장에 반대하는 간섭주의로 나타남.

□ 1980년대

- 1979년 대처의 집권과 함께 대두된 대처리즘은 전통적인 ‘건파’보다도 더 강한 경제적 자유주의로 평가받음.
 - 대처는 케인즈주의 정책을 버리고 시장 경쟁과 효율성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
- 대처정부는 3번의 총선에서 연속으로 승리하였고, 이후 메이저(John Major) 정부까지 포함해 보수당은 이 시기에 영국 현대정치사상 최장기 집권 기록 수립

□ 1990년대

- 이 시기 보수당은 여전히 대처리즘에 입각한 경제적 자유주의에 집착
- 1994년 토니 블레어(Tony Blair)가 신노동당의 기치를 들고 당수로 당선된 이후 보수당과 노동당의 지지율은 역전되고 이후 1997년부터 2010년까지 보수당의 침체가 계속됨.

□ 2000년대

- 보수당은 고리타분하고, 폐쇄적이며, 공격적이고, 여성이나 소수 인종은 배제하는 '추악한 정당(nasty party)'이라는 이미지가 굳어짐.
- 1997년 선거에서 노동당에 대패한 이후에도 보수당은 정치적 중도를 장악한 노동당과 달리 조세감축과 같은 대처주의에 입각한 공약에 매달린 결과 2001년 선거에서도 노동당에 패배
- 2005년 선거에서도 보수당은 여전히 이민통제와 치안 강화, 학교 규율과 같이 지엽적인 보수적 쟁점만 제기할 뿐 수권정당으로서의 장기적인 비전이나 철학은 보여주지 못한 채 노동당에 패배
- 2005년 12월, '습파'로 분류할 수 있는 데이비드 캐머런이 당수로 선출되면서 보수당은 비로소 침체의 늪에서 빠져 나오기 시작함.
 - 캐머런은 스스로를 진보적 자유주의자 또는 현대화된 온정적 보수주의자로 규정하였으며, 그가 개발한 정치적 담론이자 이념이 '큰 사회론'임.

IV. 데이비드 캐머런의 ‘큰 사회론(Big Society)’

1. ‘큰 사회론(Big Society)’의 등장배경

□ 보수당 개혁파의 문제의식

- 2005년 당 대표로 취임한 데이비드 캐머런과 보수당 개혁파들은 보수당이 대처시대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고 보았음.
 - 보수당이 경제에만 간혀 있으면서 정치 의제의 중심으로 떠오른 사회적 쟁점에서는 제대로 된 대안조차 제시하지 못함.
 - 따라서 이들은 보수당의 정책관심을 경제정책뿐만 아니라 사회정의에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

□ 캐머런의 해결방안

- 캐머런은 영국사회를 ‘망가진 사회(broken society)’로 진단
 - ‘큰 국가’가 복지를 통해 사회 하층민들을 구제하려 했으나 실패했고, 결국 빈곤, 국가에 대한 의존, 가족의 해체, 시민적 덕성에 기반한 자발적 참여의 종식과 같은 폐단을 가져와 영국사회가 망가졌다고 지적
- ‘망가진 사회’를 고치기 위해 캐머런은 ‘큰 국가’의 대안으로 ‘큰 사회’를 제시
 - ‘국가’ 아니면 ‘시장’ 또는 ‘국가실패’ 아니면 ‘시장실패’라는 기존의 논의에서 벗어나 국가도 시장도 아닌 ‘큰 사회’로 권력, 책임, 정책결정을 넘겨야 한다고 주장
 - ‘큰 사회론’에서는 빈곤, 불평등, 사회적 불의와 같은 문제들을 국가가 아닌 기업, 지역 공동체, 가족, 자선단체, 자원봉사 조직, 사회적 기업들이 함께 해결할 것을 기대
- ‘큰 사회론’에서 국가의 역할은 자발적 단체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하고 이들을 일정한 활동 궤도에 올려놓는 것임.
 - 다시 말해, 국가는 사회를 활성화시키는 적극적 매개자 역할임.

- 캐머런의 '큰 사회론'은 보수당을 우파에서 중도우파 내지 중도로 이동시켰다는 평가를 받았고, 보수당을 신노동당 정부에 대한 강력한 대안으로 부활시킴.

2. '큰 사회론'의 내용 및 평가

□ 경제 및 사회정책

- '큰 사회론'은 경제와 관련해서는 대처주의의 전통을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음.
 - 경제에 대한 국가의 간섭을 줄이고 세금을 낮추려 한다는 점, 국가에 의한 공공지출을 삭감하려 한다는 점, 그리고 민간부문과 비영리부문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게 한다는 점 등에서 대처주의와 맥이 닿아 있는 것처럼 보임.
- 그러나 공공서비스의 제공은 민간부문이 하지만 이에 필요한 재원은 거의 대부분 정부가 제공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캐머런의 '큰 사회론'이 대처주의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는 의문
- 보다 중요하게는, 캐머런에게 복지국가 자체는 이미 주어진 상수(常數)라고 할 수 있음.
 - 복지국가를 대처가 원했던 것만큼 후퇴시키거나 복지국가의 크기나 목표를 축소시킬 의도가 없다는 점에서 캐머런은 대처주의자와는 다름.
- 철학적 측면에서도 캐머런은 신자유주의적 보수주의자라고는 할 수 없음.
 - 신자유주의자들에게 삶의 중심은 개인이지, 가족이나 계급 혹은 사회나 국가가 아님.
 - 신자유주의적 시각에서 개인은 국가의 모든 통제로부터 자유로워야 함. 다시 말해 국가는 과세를 통해서든 혹은 특정 윤리·도덕이나 가치관을 강요하는 형태로든 개인을 통제해서는 안됨.
 - 이에 반해 캐머런은 결혼, 가족, 민족, 국가 등의 제도 혹은 기관들이 담지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들을 신봉하고 이와 같은 전통적 사회 가치들이 사회개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를 바램.

- 사회정책 면에서 보면 빈곤과 각종 사회적 병폐의 개혁, 그리고 사회정의 실현에 관심을 둔다는 점에서 캐머런의 ‘큰 사회론’은 일국 보수주의 전통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일국 보수주의에서는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국가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반해서 ‘큰 사회론’에서는 주도자가 사회라는 점에서 차이를 보임.

□ 평가

- ‘큰 사회론’은 얼핏 보면 대처주의와 일국 보수주의의 특성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경제정책은 대처주의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 반면 사회정책은 일국 보수주의 전통에 가까워 보임.
-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대처주의나 일국 보수주의와는 부합하지 않는 특성들도 지니고 있어 대처주의와 일국 보수주의 사이의 ‘제3의 길’처럼 보이기도 함.
- 보수당 내 ‘건파’라고 할 수 있는 대처의 장기 집권과 뒤따른 보수당의 장기 침체 이후에 등장한 캐머런의 ‘큰 사회론’이 보수당 내에 새로운 ‘습파’의 흐름을 창조한 것인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좀 더 지켜보아야 할 것임.
- 나아가 캐머런의 ‘큰 사회론’이 1997년 이후 노동당이 내세운 ‘제3의 길’에 성공적으로 대응한 영국 보수주의의 ‘제3의 길’이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도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임.

V. 한국 보수주의를 위한 시사점

① 일국 보수주의 혹은 온정적 보수주의 정신의 필요성

- 위에서 언급한 대로 영국 보수주의에는 자유방임적 시장경제주의와 일국 보수주의라는 두 개의 전통이 존재
 - 일국 보수주의 혹은 온정적 보수주의는 산업혁명의 여파로 영국 사회가 양극화되었을 때 어떻게 사회를 통합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보수당의 고민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음.
 - 일국 보수주의는 사회통합을 위해 기득권 계층 혹은 엘리트층의 사회적 책임 및 온정주의 정신을 강조함.
- 일국 보수주의는 신자유주의의 폐해로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오늘날 한국의 현실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시사함.
 - 우리 사회 양극화를 완화시키고 사회 통합을 위해서는 기득권 계층의 온정주의와 사회적 책임의식이 필요함.
 - 한국의 보수주의에는 일국 보수주의 혹은 온정적 보수주의와 같은 전통이 없지만 기득권 계층의 온정주의는 사회 통합 및 조화로운 사회 건설을 위해 한국의 보수주의가 새롭게 담아내야 할 정신 혹은 가치라고 할 수 있음.

② 이념적 유연성

- 영국 정치는 상이한 이념과 정책이 교차하면서 진행되어 왔음. 2차대전 이후만 보더라도 사회민주주의 시대, 신자유주의 시대, 제3의 길, 큰 사회론과 같이 이념과 정책이 명확히 구분되는 시기들이 이어짐.
 - 상이한 이념과 정책들 간의 차이는 복지국가를 확대할 것인가 혹은 축소할 것인가, 아니면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확대할 것인가 혹은 축소할 것인가를 둘러싼 것이었다고 할 수 있음.
- 그런 가운데 보수당 내부에서는 자유방임적 시장경제주의를 옹호하는 '건파'와 온정적 보수주의를 옹호하는 '습파'가 순환하며 주도권을 잡아 왔음.
 - 시대적 요구에 따라 복지국가의 확대가 필요한 시점에서는 '습파'가 주도권을 쥐었고, 반대로 국가 개입주의의 폐해가 심해졌을 때는 '건파'의 주장이 득세했음.

- 이는 보수당 정치인들이 자유방임적 시장경제주의나 일국 보수주의 가운데 어느 하나의 원칙이나 가치에만 집착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줌.
 - 다시 말해 이는 시대 변화에 적응하고 시대적 요구를 수용하면서 이념적으로 유연하게 대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기존의 '건파' 노선이나 '습파' 노선이 영국 사회가 처한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이것이 보수당의 위기로 나타날 때는 보수당 내에서 제3의 길이 등장하기도 했는데 캐머런의 '큰 사회론'이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함.
- 영국 보수주의가 이처럼 이념적으로 유연할 수 있었던 데는 당 지도자의 리더십과 역량이 큰 작용을 함.
 - 디즈레일리, 맥밀런, 대처, 캐머런 등은 변화된 시대에 맞게 보수당의 이념을 혁신시킨 지도자들이었음.
 - 그리고 보수당 내부에서는 당수가 주창하고 추진한 정책의 내용을 새로운 보수주의로 이해하고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음.
- 시대정신을 읽고 이에 부응하는 이념적 유연성은 한국의 보수주의에도 필요한 모습임.
 - 지금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고 유권자들이 원하는 것이 자유시장경제에 입각한 성장우선주의인지 아니면 경제민주화나 국가에 의한 더 많은 복지의 제공 인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 만약 후자라면, 새누리당과 한국의 보수주의는 이를 수용하기 위한 이념 혹은 정신을 새로 만들어낼 필요가 있음.
 - 시대적 요구를 파악해 이에 재빠르게 부응하는 모습을 보여 주기 위해 요구 되는 것은 당 지도자의 결단력 있는 리더십임.

③ 실용정신의 필요성

- 보수당은 이념이나 원칙보다도 선거 승리라는 실용적 목적을 더 중시해 왔고, 이것이 실제로 보수당의 선거 승리에 기여해 왔음.
 - 시대의 변화와 보수당이 추구하는 이념이 맞지 않을 때 또는 민심의 변화를 제대로 읽지 못할 때 선거에서 패배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보수당은 이로부터 비교적 빠르게 정치적 지지를 회복해 왔음.

- 이는 보수당이 유권자의 요구와 시대정신에 부합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인데 그 목적은 선거 승리였다고 할 수 있음(“The Tory Party, above all, a party dedicated to being in office...” in Davies, 1995).
-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자유당이나 노동당이 추진한 정책도 수용하거나 모방하면서 중도화의 길을 택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음.
 - 보수당 정부는 노동당 정부가 실행한 정책을 계승해서 실현하기도 함.
 - 곡물법 폐지, 상원의 권한을 크게 줄인 의회법 개정, 여성 참정권 허용, 시장과 사유재산에 대한 국가의 개입, 보다 많은 공공서비스 제공 등과 같은 정책들에 대해 처음에는 반대하더라도 일단 실시하기로 결정이 되고 나면 보수당이 집권한 후에도 이를 되돌리려 하지 않고 모두 수용
- 이와 같은 실용정신은 보수당이 ‘모두를 위한 정당’이고 ‘국가이익의 수호자’라는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기여함.
 - 실용정신에 입각해 보수당은 대토지 소유 계급과 귀족들의 정당으로부터 상공업자의 정당, 그리고 복지국가 정당으로 변모해 올 수 있었음.
 - 이와 동시에 보수당은 귀족계급으로부터 노동자 계층까지 지지기반의 외연을 계속 넓혀 올 수 있었고 어느 한 계층을 위한 정당이 아니라 모두의 정당이라는 모습을 보여줌.
 - 정당의 지지기반을 확대해 나가면서 보수당은 당의 정치적 명분을 확대시켜 나갈 수 있었으며, 그 결과 보수당이야말로 대영제국의 정당이고 국가이익의 수호자라는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었음.
- 새누리당도 보수주의 이념이나 원칙만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중도화 전략을 택하고, 또한 기득권 계층을 위한 정당으로부터 모두를 위한 정당으로 당의 지지기반을 넓혀나가야 함.
 -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가 진보 진영의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민주화와 생애맞춤형 복지 공약을 내걸고 당선된 것은 중도화 전략의 성공가능성을 입증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보수당의 실용정신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실천’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정책들을 실시하겠다고 공약을 했거나 실시하기로 결정이 되었다면 실제로 이를 지키는 것임.

참고문헌

- 강원택 (2011). 보수정치는 어떻게 살아남았나: 영국 보수당의 역사. 서울:(재) 동아시아연구원.
- 김보영 (2014). 영국 캐머런 정부의 보수주의: 영국 보수정치의 두 가지 전통의 맥락에서. 여의도연구원 주최 「유럽 보수정당들의 중도화와 한국정치에의 시사점」 간담회 자료집 (2014. 11.21). 서울.
- 김비환 (2011). 영국 보수주의 사상의 형성과 진화: ‘변화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32집 2호, 121-156.
- 유범상 (2012). 제3의 길과 큰 사회론의 이념과 공동체 구상: 삼쌍둥이의 차별화 전략과 복지정치. 공간과 정치, 제22권 1호, 43-80.
- 홍석민 (2014). D. 캐머런의 ‘큰 사회론(Big Society)’과 영국 보수주의 전통. 영국 연구, 제31호, 261-295.
- Davies, A. J. (1995). We, the Nation: The Conservative Party and the Pursuit of Power. London: Little, Brown and Company.

여의도연구원은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정책정당 발전을 통한 새로운 정치문화 구현에 기여하기 위하여 「여연브리프」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여연브리프」의 전문을 www.ydi.or.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원고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새누리당과 여의도연구원의 공식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의도연구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6길 22 기계산업진흥회 신관 3층
전화: (02) 2070-3300 팩스: (02) 2070-3331 (우 150-729)